

투데이 칼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 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6일 오전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특검팀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에서 한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뭐가 되겠는가. 이 말은 단순한 겸양의 표현일까, 아니면 자기 역할에 대한 면피인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존재감과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 짧은 한마디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사과 멘트에 ‘변론 전략’과 ‘가시’가 들어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신은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기에 공전 등에 개입할 수 없고, 일부 관여했다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대대적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극우 지지층 정서를 건드리는 계산된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부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다. 과거 허위 이력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비선 라인과의 관계까지... 정치권과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20대 대선 직전 공개된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보면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과 같은 문제의 발언이 곳곳에 들어 있다. 김 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2022년 4~8월 진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감보디아 공작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대선 직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2월 기

지화전에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혹의 중심에 놓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지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가 갖는 위치는 본질적으로 공적이다.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대표해 외빈을 응대하고, 국민 앞에 서서 대통령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때로는 조용한 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감보디아 공작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대선 직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2월 기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 배우자의 품격과 태도까지 함께 본다. 그것은 단지 이미지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이란 지리가 갖는 엄청난 권한과 고립감 속에서 가장 가까운 참모이자 조언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과 단둘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 어떤 비밀스런 말도 오갈 수 있다. 이럴때면 국정 운영 같은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김건희 씨는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지녔었다. 자신이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적 공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며, 야권의 공식 비판 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정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이며 그 기초위에 세워진다. 하지만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죄지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응보(應報)의 정의다.



신 영 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사 설

제3회 그림트리(tree) 전시회 ‘쉼’

제3회 그림트리(tree) 전시회 ‘쉼’이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1층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모두 5명이다.

아르노마드 회원으로 갑오동학미술대전, 춘향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한 김광태 회원은 ‘열정’, ‘사과’, ‘노송’, ‘사과’를 출품했다.

춘향미술대전 초대작가이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안경순 작가는 ‘유채꽃 필 무렵’, ‘장미의 미소’, ‘자화상’,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등을 전시했다.

환경미술협회 이영숙 회원은 ‘풍경-봄’, ‘풍경-여름’, ‘풍경-가을’, ‘풍경-겨울’ 등 4계절을 캔버스에 실었다. 갑오동학미술대전 정임주 추천작가는 ‘발을 멈추다’, ‘꿈’, ‘들녘에서’, ‘설경’ 등을 그려냈다.

전북여성미술협회 황선의 회원은 ‘파라다이스’, ‘기다림’, ‘추억’, ‘너에게 가는 길’ 등이 선을 보였다.

제3회를 맞이한 그림트리 전시회는 각 회원들의 서로 다른 시선과 고유한 감성으로 이뤄졌다. 작품 하나하나에 열정과 스토리를 조용한 색깔로 진솔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작가들은 이 작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고 일상에 새로운 영감의 빛으로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광태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림 트리(tree)가 전시회를 통해 변함없이 꿈을 키우는 예술의 숲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음투자 사업 논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

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사 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여행객들 앞에서 침묵시위하는 에어캐나다 승무원들



11일(현지 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먼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전곡 행동의 날을 맞아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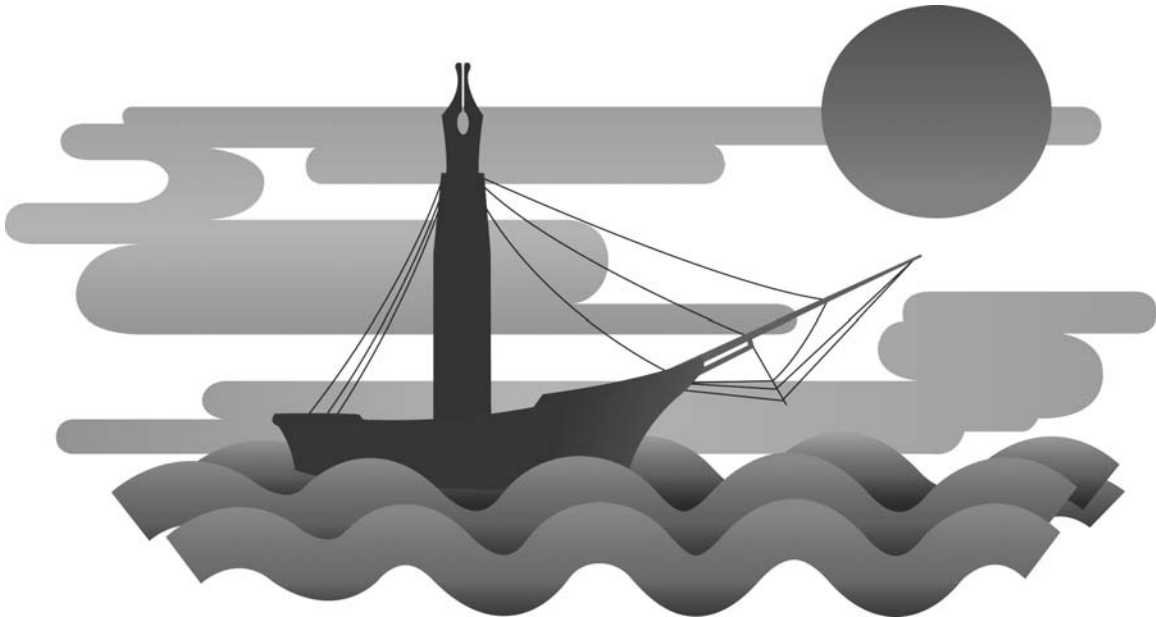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기자 5명 폭사한 가자시티 천막 살피는 기자들



11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 기자들이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취재용 천막을 살피고 있다. 이 천막에 머물던 알자지라 소속 기자 5명이 10일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